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

유 명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전문직은 책임과 의무 및 생명의 존엄성과 같은 윤리적 측면이 타 전문직보다 훨씬 더 강조된다 [1]. 미래의 간호주역인 간호대학생을 비롯한 임상실무 전문가들은 타 건강전문가들과의 관계 및 조직환경에서 도덕적 가치에 윤리적 부담감을 경험한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현장에서 환자의 권리와 존엄성이 침해되고, 간호표준의 불이행, 부실한 업무 관행을 목격할 경우에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불안, 우울, 좌절감, 무력감,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간호전문직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나타낸다고 하였다[3].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에 대한 신념과 관념 및 이상의 합으로 간호에 대한 체계적인 직업의식적 견해를 의미한다[4]. 이는 전인간호 실천에 있어 핵심적 요소로서 이론과 실습 교육을 통해 형성되기 시작하여 졸업 후 실무적응, 재직 의도 및 간호업무 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다[5]. 바람직한 임상실습 교육 환경과 스트레스 대처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고[6], 간호에 대한 올바른 전문직관 형성은 도덕적 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임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7].

도덕적 민감성은 실제 상황에서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도덕적 결정에 대한 결과를 이해하는 역량,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개인

의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윤리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영향을 주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선행요인이다[8].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환자의 옹호자로서 참여해야 하며, 이때 간호사의 도덕적 민감성은 도덕적 행동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준다[2].

도덕적 행동에 앞서 합당하고 의미있는 행동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비판적 사고과정을 거쳐야 한다[9]. 비판적 사고성향은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려는 동기와 의도 및 태도를 말한다[10]. 뛰어난 비판적 사고능력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성향이 없으면 무의미하므로, 비판적 사고성향은 윤리적 상황에서 윤리적 실천을 가능하게 하므로 간호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11]. 간호실무 현장에서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주체자로서 간호문제해결과정에서 정확한 평가와 판단을 도와주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를 겸비한 간호사를 필요로 한다[12]. 그러므로 간호대학 교육과정 안에서 비판적 사고성향이 함양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환자 및 간호전문직을 위한 옹호와 관련하여 주목받기 시작한 도덕적 용기는 덕윤리에서 기원하는데 개인의 핵심가치를 지켜내고 두려움에 대처하는 능력으로 어떠한 내·외적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을 말한다[13]. 도덕적 용기의 부족은 간호사의 소진과 이직, 직무몰입 방해 뿐만 아니라 동료, 근무환경 및 전반적인 의료체계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환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다[14]. 도덕적 용기는 윤리적 간호의

주요어 : 용기, 도덕, 간호, 전문직관, 사고

* 이 결과물은 2018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의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교수(<https://orcid.org/0000-0002-5879-1701>) (교신저자 E-mail: sryoo7@cu.ac.kr)

투고일: 2021년 2월 14일 수정일: 2021년 2월 26일 게재확정일: 2021년 3월 1일

중요한 기준으로서 임상실습 환경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윤리적 도전은 도덕적 용기를 필요로 한다[15].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 윤리적 문제는 환자의 권리 및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이었다[3]. 대다수의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문제를 내포한 간호상황 안에서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관찰자의 태도를 취하면서 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나[16] 현재 간호학 교육과정 안에서도 도덕적 용기는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로 하여금 향후 간호실무현장에서 간호전문직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다하고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간호교육 과정 안에서 도덕적 용기를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17].

도덕적 용기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는 Sekerka 등[18]이 개발한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 (PMCS)을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19], 간호실무 영역 개념으로서 도덕적 용기에 대한 설명모델[20],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의 관계[17] 등이 있다. 간호대학생의 경우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환자중심간호만 도덕적 용기의 유일한 설명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미미한 수준이었다[17]. 간호사의 경우 근무경력, 간호조직문화, 인본주의, 공감 등이었다[20]. Escolar-Chua [2]의 연구에서 필리핀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고뇌 및 도덕적 용기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국내외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용기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도덕적 용기 정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D광역시의 2개의 간호대학에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경험한 자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임상실습 환경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도덕적 고뇌와 도덕적 민감성의 관계 연구(효과크기=.15, 유의수준=.05, 검정력=.80, 예측변인 수=13, 양측검정)에 근거하여[17] 요구되는 표본 수는 131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G*Power 3.1.9.2 프로그램을 통하여 효과크기=.15, 유의수준=.05, 검정력=.95, 예측변인의 수를 일반적인 특성 7개, 독립변수 4개, 총 11개로 설정하였을 때 다중회귀 분석을 위한 최소 표본수는 178명이 산출되었다[21].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0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응답이 불충분한 4부를 제외하고 총 200부를 최종적인 통계 분석에 이용하였다.

연구 도구

● 간호전문직관

간호전문직관의 측정은 Yeun 등[4]이 개발한 간호사 대상의 간호전문직관 측정도구 29문항을 Han 등[22]이 간호대학생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18문항의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전문직 자아개념(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호실무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92였고 Han 등[22]의 연구에서는 .9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4였다.

● 도덕적 민감성

도덕적 민감성의 측정은 Lutzén 등[8]이 개발하고 Han 등[23]이 한국판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연구자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저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환자중심 간호(5문항), 전문적 책임(7문항), 갈등(5문항), 도덕적 의미(6문항), 선행(4문항)의 5개 하위요인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8], Han 등[2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였다.

● 비판적 사고성향

비판적 사고성향의 측정은 Yoon [10]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개발한 비판적 사고성향 측정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5문항), 신중성(4문항), 자신감(4문항), 체계성(3문항), 지적 공정성(4문항), 건전한 회의성(4문항), 객관성(3문항) 7개 하위요인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다.

● 도덕적 용기

도덕적 용기의 측정은 Sekerka 등[18]이 군인을 대상으로 개발한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 (PMCS)을 Moon과 Kim [19]이 한국어로 번역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저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도덕적 목표와 실천(6문항),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2문항), 위협을 감수함(2문항), 다양한 가치기준 고려(2문항) 4개 하위요인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7점까지의 Likert형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도덕적 용기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81이었고[18], Moon과 Kim [1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7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2였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학과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협조 및 승낙을 받은 후에 실시하였다. 3학년과 4학년 과대표와 전화로 자료수집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설문조사 일지와 장소를 정한 다음 연구보조원이 직접 방문하여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를 희망한 자에 한하여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수집을 실시하였다. 설문지 작성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검정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 대상자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D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IRB No: CUIRB-2018-0074)을 받은 다음 수행되었다. 사전에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 및 소요 시간, 개인정보 관리를 비롯한 자발적인 참여 및 연구참여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 연구 불참 및 중도 탈퇴는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자료는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수집된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영구삭제될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서면으로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에 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소지하게 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별 봉투에 설문지를 넣고 테이프로 밀봉한 후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에게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그에 따른 도덕적 용기의 정도는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나이는 평균 22.20±1.71세 이었다. 학년은 4학년 104명(52.0%), 종교는 무 143명(71.5%), 간호학 선택동기는 취업보장 85명(42.5%)으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 110명(55.0%), 간호윤리교육 경험은 독립교과목 172명(61.0%)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도덕적 용기의 정도는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전공만족도가 보통인 경우에 비해 매우 만족하는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F=3.99, p=.009$) (Table 1).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정도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95 ± 0.40 점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간호의 독자성 4.33 ± 0.89 점, 간호의 전문성 4.28 ± 0.54 점, 전문직 자아개념 4.09 ± 0.49 점, 간호 실무역할 4.07 ± 0.64 점, 사회적 인식 3.40 ± 0.63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도덕적 민감성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4.62 ± 0.43 점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환자중심 간호영역 5.75 ± 0.61 점, 전문적 책임 5.48 ± 0.55 점, 갈등 4.96 ± 0.70 점, 도덕적 의미 4.50 ± 0.84 점, 선행 3.13 ± 0.67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비판적 사고성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78 ± 0.33 점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객관성 4.19 ± 0.44 점, 지적 공정성 4.10 ± 0.42 점, 지적 열정/호기심 3.79 ± 0.47 점, 건전한 회의성 3.77 ± 0.55 점, 자신감 3.73 ± 0.49 점, 체계성 3.64 ± 0.61 점, 신중성 3.29 ± 0.47 점 순이었다.

대상자의 도덕적 용기 점수는 7점 만점에 평균 평점 5.20 ± 0.63 점이었다.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도덕적 목표와 실천 5.53 ± 0.75 점,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 5.27 ± 0.79 점, 다양한 가치기준 고려하기 4.91 ± 0.95 점, 위협을 감수함 4.44 ± 1.03 점 순이었다(Table 2).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도덕적 용기는 간호전문직관($r=.33, p<.001$), 도덕적 민감성($r=.51, p<.001$), 비판적 사고성향($r=.48, p<.001$)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전문직관과 도덕적 민감성($r=.36, p<.001$) 및 비판적 사고성향($r=.33, p<.001$)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성향($r=.57, p<.001$) 간의 관계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대상자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주 연구변수인 도덕적 용기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을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공차(Tolerance)는 .67~.97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도 1.03~1.52로 10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5로 2에 근접하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가 2.51~2.91로 2에 근접하여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 확인과 모형의 적합성도 충족되었다($F=33.10, p<.001$).

〈Table 1〉 Differences of Moral Courag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00)

Variable	Categories	n(%)	M±SD	t or F(p)	Scheffé
Gender	Male	29(14.5)	5.27±0.44	0.82 (.418)	
	Female	171(85.5)	5.19±0.65		
Age(years)			22.20±1.71		
Academic year	Junior	96(48.0)	5.20±0.69	-0.08 (.939)	
	Senior	104(52.0)	5.20±0.56		
Religion	Have	57(28.5)	5.15±0.51	0.45 (.654)	
	Have not	143(71.5)	5.26±0.62		
Selection motivation to study nursing	Employment guarantee	85(42.5)	5.11±0.64	1.44 (.223)	
	Fits aptitude	67(33.5)	5.32±0.64		
	Recommendation of people around	21(10.5)	5.08±0.57		
	Based on score	17(8.5)	5.21±0.56		
	Others	10(5.0)	5.38±0.63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	Very satisfied ^a	21(10.5)	5.41±0.61	4.00 (.009)	a>c
	Satisfied ^b	110(55.0)	5.27±0.57		
	Neutral ^c	53(26.5)	4.96±0.67		
	Dissatisfied ^d	16(8.0)	5.21±0.70		
Education experience of the nursing ethics	Independent subject	172(86.0)	5.18±0.63	-1.00 (.319)	
	Included in other subjects*	28(14.0)	5.31±0.62		

[†]Scheffé test

대상자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도덕적 민감성 ($\beta=.35, p<.001$), 비판적 사고성향($\beta=.25, p=.001$)과 일반적인 특성 중에서 보통의 전공만족도($\beta=-.16, p=.0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도덕적 용기를 32.6% 설명하였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정도를 파악하고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공만족도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은 평균 평점 3.95±0.40 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간호의 독자성, 간호의 전문성,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실무 역할, 사회적 인식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선행연구

<Table 2> The Degre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Moral Courage of Subjects (N=200)

Variable	M±SD	Min.	Max.	Possible range
Nursing professionalism	3.95±0.40	2.44	5.00	2.44~5.00
Self-concept of profession	4.09±0.49	2.17	5.00	2.17~5.00
Social awareness	3.40±0.63	1.80	5.00	1.80~5.00
Professionalism of nursing	4.28±0.54	2.67	5.00	2.67~5.00
The roles of nursing service	4.07±0.64	2.00	5.00	2.00~5.00
Originality of nursing	4.33±0.89	1.00	5.00	1.00~5.00
Moral sensitivity	4.62±0.43	3.78	6.19	3.78~6.19
Patient centered nursing	5.75±0.61	4.00	7.00	4.00~7.00
Professional responsibility	5.48±0.55	4.00	7.00	4.00~7.00
Conflict	4.96±0.70	3.00	6.80	3.00~6.80
Moral meaning	4.50±0.84	2.60	7.00	2.60~7.00
Beneficence	3.13±0.67	1.20	5.60	1.20~5.6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3.78±0.33	3.00	4.70	3.00~4.70
Intellectual eagerness/curiosity	3.79±0.53	2.20	5.00	2.20~5.00
Prudence	3.29±0.47	1.75	4.75	1.75~4.75
Self-confidence	3.73±0.49	2.00	5.00	2.00~5.00
Systematicity	3.64±0.61	2.00	5.00	2.00~5.00
Intellectual/fairness	4.10±0.42	2.00	5.00	2.00~5.00
Healthy skepticism	3.77±0.55	2.00	5.00	2.00~5.00
Objectivity	4.19±0.44	2.67	5.00	2.67~5.00
Moral courage	5.20±0.63	3.50	6.58	3.50~6.58
Moral goals & act	5.53±0.75	3.17	7.00	3.17~7.00
Going beyond compliance	5.27±0.79	3.50	7.00	3.50~7.00
Enduring threats	4.44±1.03	2.00	7.00	2.00~7.00
Multiple values	4.91±0.95	2.50	7.00	2.50~7.00

Min.=Minimum; Max.=Maximum.

<Table 3> Correlations among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Moral Courage of Subjects (N=200)

Variable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Moral courage
	r(ρ)	r(ρ)	r(ρ)	r(ρ)
Nursing professionalism	1			
Moral sensitivity	.36(<.001)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33(<.001)	.57(<.001)	1	
Moral courage	.33(<.001)	.51(<.001)	.48(<.001)	1

에서 한 학기 이상 임상실습을 수행한 3,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Kim과 Yoo [24]의 연구에서의 3.77점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간호전문직관 하위요인 중 사회적 인식 점수가 3.4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선행연구[24-25]에서도 사회적 인식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임상실습 현장에서 연구대상자가 경험한 임상실습 교육환경 및 교육의 질, 개인적 경험이 다름에서 기인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26].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향상 방안을 고려할 때 임상실습 교육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실습기관과의 긴밀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전환을 위한 간호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 기반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민감성은 평균 평점 4.62±0.43 점(7점 만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환자중심간호, 전문적 책임, 갈등, 도덕적 의미, 선행 순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 [27]의 연구에서 4.92점, Kim [28]의 연구에서 4.98점, 2,3,4 학년을 대상으로 한 Kim [11]의 연구에서 5.09점(7점 환산), 4학년을 대상으로 한 Yun 등[17]의 연구에서 5.00점과 비교할 때 대체로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들 간의 도덕적 민감성 정도의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의하게 점수가 낮은 경우도 있었지만[27], Kim [11]과 Kim [28]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28]의 연구에서 2학년에 비해 4학년이 간호대상자와 접촉할 기회가 많고 윤리적 상황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서 도덕적 민감성 점수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요인에서 환자중심간호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 결과[17,27-28]와 일치한다.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윤리적 문제로 가장 많이 제기한 환자의 권리 및 존엄성과 관련된 부분과도 일맥상통한 결과이다[3]. 즉, 대상자 중심의 간호를 민감하게 의식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나 Kim [11]의 연구에서는 갈등이 가장 높고 환자중심간호가 가장 낮게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은 평균 평점

3.78±0.33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객관성, 지적공정성, 지적열정/호기심, 건전한 회의성, 자신감, 체계성, 신중성 순이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 [27]의 연구에서 3.45점, Kim [28]의 연구에서 3.48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전학년을 대상으로 한 Lim [27]의 연구에서는 지적공정성이 가장 높고, 신중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Kim [28]의 연구에서는 지적열정/호기심이 가장 높고, 객관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나타냈다. 비판적 사고성향에서의 객관성은 합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결론을 이르게 하며 증거 및 사유가 충족될 때 입장을 취하려는 태도를 의미하는데[10] 최근 간호학 분야에서 문제중심 학습이나 사례기반 학습 및 토론식 수업을 통해 근거중심 간호실무를 강조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의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임상현장을 반영한 교수법,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의 변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27]. 이를 위해 임상전문가와 협업하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시뮬레이션 교육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평균 평점 5.20±0.63 점(7점 만점)이었고, 하위요인별 평균 평점은 도덕적 목표와 실천,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 다양한 가치 기준 고려, 위협을 감수할 순이었다. 이는 본 연구와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Yun 등[17]의 평균 평점 4.69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고, 하위요인별 순위는 일치하였다. 이는 도덕적 용기 정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난 Yun 등[17]의 연구에서는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연구의 대상자는 3학년과 4학년이 포함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도덕적 용기가 개인적인 결정이라는 특성으로 연령보다는 개인의 특성에서 기인한다는[17] 점을 고려하면 추후 반복연구를 통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도구의 하위요인에 도덕적 역량이 추가된 도구를 사용하여 필리핀의 간호대학 3, 4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Escolar-Chua [2]의 연구에서 도덕적 목표, 다양한 가치, 단순한 지시수행을 넘어서, 위협을 감수할, 도덕적 역량 순으로 다소 연구결과의 차이를 보여 향후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가치기준 고려와 위협을 감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Moral Courage of Subjects

(N=200)

Variable	B	SE	β	t	p
Moral sensitivity	.52	.10	.35	4.983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47	.13	.25	3.490	.001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 d2	-.23	.08	-.16	-2.698	.008
R ² =.336, Adj R ² =.326 F=33.10, p<.001					

[†]Dummy variables(Very satisfied=0, Satisfied=d1, Neutral=d2, Dissatisfied=d3)

수합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의 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해당 요인의 문항 내용상 간호대학생의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직접 개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드물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라 도덕적 용기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Yun 등[1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동기 부여가 잘 되어 이론교과목의 내용을 임상실습에서 직접 경험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라는 Lee [29]의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간호학 이론교과목에서 다루어지는 간호사윤리강령 및 지침, 간호사의 법적 책임 등을 숙지하고 임상실습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여하에 달려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도덕적 용기 간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un 등[17]의 연구에서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요인 중 환자중심간호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Escolar-Chua [2]의 연구결과에서 도덕적 민감성이 도덕적 용기의 모든 하위요인과 상관관계를 보여 부분적으로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 도덕적 용기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의 도덕적 용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한 결과,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보통의 전공만족도 순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변수는 32.6%의 설명력을 보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변인은 도덕적 민감성으로서 Yun 등[16]의 연구에서의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환자중심간호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설명력은 5% 수준이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도덕적 민감성의 하위요인인 환자중심간호는 도덕적 용기가 간호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간호대상자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을 지지한다[20]. Bickhoff 등[16]의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결과, 간호대학생들은 환자옹호의 역할을 매우 강하게 인식하고, 환자안전과 위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실무상황에 대하여 전문적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비판적 사고성향은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높은 영향요인으로서 특히 하위요인인 체계성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는 Lim [27]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이 임상실습에서 경험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성찰일지를 작성하여 간호윤리 수업이나 실습집담회, 혹은 디지털 스토리텔링과 같은 창의적인 기법을 통하여[30]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공만족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후분석 결과 보통에 비해 매우 만족의 경우에 도덕적 용기 정도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고, 보통의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Yun 등[16]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과 차이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은 임상실습 중에 혼란스러움과 두려움, 실망감 등으로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2]

전공과 간호전문직 자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전공만족도의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키고 도덕적 용기를 함양할 수 있도록 임상실습에서 오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격려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전문직관은 도덕적 용기와 상관관계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덕적 용기에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미비로 정확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일 지역 2개 간호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국한되었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따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및 비판적 사고성향이 도덕적 용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는 간호전문직관을 제외한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 및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국내 간호학 분야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하여 간호전문직관, 도덕적 민감성, 비판적 사고성향이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하고 관련성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에 대한 증진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써 향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급변하는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도덕적 민감성을 지니고 올바른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며, 도덕적 용기를 갖춘 대상자 옹호자가 되어 윤리적 환경조성과 간호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첫째, 추후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와 관련된 다양한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도덕적 용기를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높은 도덕적 민감성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지닐 수 있도록 산학연 협동으로 임상사례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교육과정 및 시나리오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1. Kim YK, Joung MY.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115-124. <http://dx.doi.org/10.5977/jkasne.2019.25.1.115>
2. Escolar-Chua RL. Moral sensitivity, moral distress, and moral courage among baccalaureate Filipino nursing students. *Nursing Ethics*. 2018;25(4):458-469. <https://doi.org/10.1177/0969733016654317>
 3. Noh YG, Jung MS. A study of moral judgment and ethical decision making and ethical dilemmas experienced in practice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915-2925. <https://doi.org/10.5762/KAIS.2013.14.6.2915>
 4. Yeun EJ, Kwon YM, Ahn OH.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s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ic of Nursing*. 2005;35(6):1091-1100. <https://doi.org/10.4040/jkan.2005.35.6.1091>
 5. Jang GS, Lee MH, Kim IS, Kim SH, Shin MJ, Ha NS, et al. *Ethics & profession of nursing*. 3rd ed. Seoul: Hyunmoonsa; 2017. p.184-186.
 6. Lim SM. Factors influencing nursing professional valu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20;10(5):51-59. <https://doi.org/10.22156/CS4SMB.2020.10.05.051>
 7. Kim YK, Joung MY.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campus environment on the perception of ethical sensitivit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25(1):115-124.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115>
 8. Lutzén K, Dahlqvist V, Eriksson S, Norberg A. Developing the concept of moral sensitivity in health care practice. *Nursing Ethics*. 2006;13(2):187-196. <https://doi.org/10.1191/0969733006ne8370a>
 9. Facione NC, Facione PA, Sanchez C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s a measure of competent clinical judgment: The development of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994;33(8): 345-350. <https://doi.org/10.3928/0148-4834-19941001-05>
 10. Yoon J.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in nursing. [dissertation], Seou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4. p. 3-5.
 11. Kim MS.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5; 21(3):382-392. <https://doi.org/10.5977/jkasne.2015.21.3.382>
 12. Zhang Z, Luk W, Arthur D, Wong T. Nursing competencies: personal characteristics contributing to effectiv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ic Nursing*. 2001; 33(4):467-474. <https://doi.org/10.1046/j.1365-2648.2001.01688.x>
 13. Numminen O, Katajisto J, Leino-Kilpi H.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nurses' moral courage scale. *Nursing Ethics*. 2018;26(7-8):2438-2455. <https://doi.org/10.1177/0969733018791325>
 14. Gallagher A. Moral distress and moral courage in everyday nursing practice. *Online Journal of Issues in Nursing*. 2011;16(2):8. <https://doi.org/10.3912/OJIN.Vol16No02PPT03>
 15. Hanifi N, Moqaddam M, Ghahremani Z. Factors related to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in Zanjan. *Preventive Care in Nursing & Midwifery Journal*. 2019;9(1):22-28. <https://doi.org/10.29252/pcnm.9.1.22>
 16. Bickhoff L, Sinclair PM, Levett-Jones T. Moral courage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a literature review. *Collegian*. 2017;24(1):71-83. <https://doi.org/10.1016/j.colegn.2015.08.002>
 17. Yun HY, Kim SK, Jang HE, Hwang SW, Kim SH. The influence of moral distress and moral sensitivity on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8;21(4):360-376. <https://doi.org/10.35301/ksme.2018.21.4.64>
 18. Sekerka LE, Bagozzi RP, Charnigo R. Facing ethical challenges in the workplace: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professional moral courage. *Journal of Business Ethics*. 2009;89(4):565-579. <https://doi.org/10.1007/s10551-008-0017-5>
 19. Moon SJ, Kim DS. Convergence study of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ing for professional moral courage scale translated in Korea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7;8(3):151-161. <https://doi.org/10.15207/JKCS.2017.8.3.151>
 20. Moon SJ, Anh SH. An explanatory model of moral courage as a concept of nursing practice domain.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2019;22(4):341-358. <https://doi.org/10.35301/ksme.2019.22.4.341>
 21. Faul F, Erdfelder E, Buchner A, Lang A-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2009;41: 1149-1160. <https://doi.org/10.3758/BRM.41.4.1149>
 22. Han SS, Kim MH, Yun EK.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08;14(1):73-79. <https://doi.org/10.5977/JKASNE.2008.14.1.073>
 23. Han SS, Kim JH, Kim YS, Ahn SH. Validation of a Korean version of the moral sensitivity questionnaire. *Nursing Ethics*. 2010;17(1):99-105. <https://doi.org/10.1177/0969733009349993>
 24. Kim HW, Yoo MS.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intelligence on the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20;14(2):41-54. <https://doi.org/10.12811/kshsm.2020.14.2.041>
 25. Choi HJ.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image of nurse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among nursing student.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6;10(4):225-237. <https://doi.org/10.12811/kshsm.2016.10.4.225>
 26. Kim CH, Kim JY.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learning environment, self-leadership, and clinical practice belonging on nursing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9; 25(1):5-16.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1.5>
 27. Lim MH.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6;17(9):610-618. <https://doi.org/10.5762/KAIS.2016.17.9.610>
 28. Kim JI.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moral sensitiv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9): 6053-6060. <https://doi.org/10.5762/KAIS.2015.16.9.6053>
29. Lee HJ.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016;7(4):75-83. <http://dx.doi.org/10.15207/JKCS.2016.7.4.075>
30. LeBlanc RG. Digital story telling in social justice nursing education. Public Health Nursing. 2017;34(4):395-400. <https://doi.org/10.1111/phn.12337>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Yoo, Myung Sook¹⁾

1)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es of nursing professionalism,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the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Methods:** The subject included 200 nursing students from two universities located in D city of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8 to 26, 2018 by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the IBM SPSS 25.0 program. **Results:**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the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were moral sensitivity ($\beta=.35$, $p<.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beta=.25$, $p=.001$), and neutral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beta=-.16$, $p=.008$). This model had 32.6% explanation of moral courage of nursing students.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o improve moral courage in nursing students, an intervention that enhances their moral sensitivity, critical thinking, and satisfaction on nursing major should be considered.

Key words : Courage; Morals; Nursing; Professionalism; Thinking

* This work was supported by research grants from Daegu Catholic University in 2018.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Myung Sook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42472, Republic of Korea
Tel: 82-53-650-4824 Fax: 82-53-650-4392 E-mail: sryoo7@cu.ac.kr